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인력기준 개선

현행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

취약지 병원 '간호사 확충' 인건비 지원

실제 간호사 고용 증가 확인된 경우 보상

간협,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주력

대정부·대국회 정책활동 결실 맺어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 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고, 의료취약지 병원의 간호사 확충에 필요한 인건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4월 25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가 그동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활동을 펼치며 노력한 결과 이뤄낸 결실이다.

간호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간호관리료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대정부활동을 펼쳤고, 국회 의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간호관리료 등 간호수가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의료기관의

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첫째,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대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했다.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인력산정 기준은 외국과 달리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특히 최근 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력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환자 수로 전환하는 방안은 우선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에 대

해 적용한다.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 시(구가 있는 시), 서울 인접지역은 제외한다.

둘째, 의료취약지 병원의 간호사 확충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시범 운용기로 했다.

의료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의료취약지 58개 시군구 소재 병원 88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방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관리료 차등제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서 "간호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1999년 11월 도입됐다. 현재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하고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메디컬드라마 속 '남자간호사' 등장

성역할 고정관념 깬 좋은 사례로 꼽혀

남자간호사를 병원드라마에 등장시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깬 좋은 사례로 제시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안내서는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고려했으며, 학계·시민단체·프로듀서·작가·정책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방송사와 제작진이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5개 영역으로 나눠 정리하고, 영역별로 점검 포인트와 구체적인 좋은 방송사례를 제시했다.

5개 영역은 △주제선정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 다양성을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등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 다양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한 병원드라마에서 남자간호사를 등장시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제시됐다.

안내서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여성가족부(mogef.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kigep.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성상표화는 일반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 제작진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보여줘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선정적으로 다루는 안된다 △성차별적 언어사용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등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 다양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한 병원드라마에서 남자간호사를 등장시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제시됐다.

안내서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드라마 제작사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여성가족부(mogef.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kigep.or.kr)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방송에서 보여지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성상표화는 일반 성인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송 제작진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확 바뀐 하나카드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시 5,000포인트 지급!
- 협회 관련 결제 시 20,000원 캐시백!



웹사이트 www.nurselife.or.kr ☎ 1566-3137



건강생활 실천 성인 10명 중 3명 불과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 증가 추세

일상생활에서 금연, 절주, 걷기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성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전국 254개 보건소와 함께 지역별 평균 900명의 표본을 추출해 매년 8~10월 실시하고 있는 지역단위 건강조사다. 2016년 조사는 총 22만84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도 간 또는 지역 간 건강지표별 격차는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표에 따라 여전히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건강생활실천율은 27.1%로 나타났다. 전년 및 2008년 대비 각각 1.2%p, 7.2%p 감소했다.

현재흡연율은 22.5%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고, 2008년보다 3.5%p 감소했다.

고위험음주율은 18.6%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고, 2008년보다 0.2%p 증가해 대체로 정체된 경향을 보였다.

걷기실천율은 38.7%로 전년 대

비 2%p, 2008년 대비 11.9%p 떨어졌다.

안전벨트 착용률은 운전자석이 84.1%, 동승자량 앞좌석이 76.8%로 높았으나 동승자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12.6%로 매우 낮았다.

2012년부터 2년마다 조사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28.7%로 2012년과 2014년 대비 각각 11.8%p, 6.3%p 올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심장정지 생존추적조사를 병합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이 10% 증가할 때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 질병관리본부장은 "시·도 간 또는 지역 간 건강지표별 격차는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지만 지표에 따라 여전히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며 "타 지역에 비해 지표값이 낮은 경우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chs.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원시자료는 신청 절차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6개 권역센터

www.RNjob.or.kr

서울·강원
 인천
 경기
 대전·충북·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북·전남·제주

☎ 02)2268-2631~3
 ☎ 032)441-2926
 ☎ 031)302-9504
 ☎ 042)825-0749
 ☎ 053)756-8487
 ☎ 051)442-3824~5
 ☎ 062)222-5025



프랑스 최초의 BB크림 누가 만들었을까?

뷰티 본고장 프랑스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에르보리앙 BB·CC 크림을

'한국콜마'가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구요? 그럴 수밖에요

화장품 제조사는 당신의 눈에 띄지 않는 화장품 뒷면에 있으니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화장품을 연구 제조하는

글로벌 NO.1 화장품 제조사 '한국콜마'입니다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화장품 품질을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제조사를 확인하세요!

CGMP 1호·2호 한국콜마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